

## <남염부주지>의 작품세계와 의미\*

안창수\*\*

- I. 머리말
- II. 당위적 질서와 현실의 괴리
- III. 삶의 바른 이치와 타락한 세계질서의 원인
- IV. 정치의 정도(正道) 회복에 대한 염원과 선위(禪位)의 의미
- V. 맺음말

### 【국문초록】

<남염부주지>는 시대의 타락상을 목도하며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했던 김시습이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해답을 추구한 작품이다.

경주에 사는 박생은 타락한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세계에서 당위적 질서와 현실의 질서, 이론과 실체가 어로 어긋남으로써 파생되는 괴리와 논리적 모순에 직면해 심각한 인식의 혼란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리론이라는 글을 지어 삶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는다.

꿈에 염부주에 간 박생은 염왕과의 문답을 통해 당위적 질서와 현실의 질서, 이론과 실체가 어긋남으로써 하늘에는 요괴의 변괴가 나타나고, 인간세상은 타락한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늘과 인간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결국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고,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마저도 당위적 질서는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의 정치는 타락한 가치에 지배되고 있었다.

마침내 박생은 죽어서 염부주의 왕이 됨으로써 삶의 바른 이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염원을 실현하려 한다. 타락한 가치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살기보다 삶의 바른 이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을 죽으로써 지키려 한 것이다.

주제어 : 작품세계, 당위적 질서, 현실의 질서, 인식의 혼란,  
정치적 정도, 신념

## I. 머리말

<이생규장전>이 세종과의 사회적 관계를 다루며 불의가 폭력으로 정의를 유린하는 세계질서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다면, <취유부벽정기>는 그러한 타락상을 역사에서도 확인하는 데에서 오는 비통함과 절망을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몸담고 있는 당대의 현실과 역사 모두에서 불의가 정의를 유린하며 새로운 정통세력으로 행세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김시습은 삶의 바른 이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

삶의 바른 이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것을 염왕과의 문답을 통해 논설적으로 따지는 형식을 띠고 있는 <남염부주지>는 이런 점에서 <이생규장전>과 <취유부벽정기>의 의미를 받

1)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영남어문학 26집, 영남어문학회, 1994, pp.103~126).

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염부주지>가 삶의 바른 이치를 제시하고 염왕과의 문답을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작품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러서는 작품의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세태와 역사의 타락상을 목도한 김시습은 삶의 바른 이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타락한 가치에 지배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타락한 세상은 교정될 수 없는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문을 가졌고, <남염부주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인 해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타락상을 목도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아 가야 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염부주지>는 김시습의 사상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염부주지>는 삶의 바른 이치에 대한 김시습의 철학적 관심을 바탕으로 타락한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 전망을 제시하고 세상이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의 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II. 당위적 질서와 현실의 괴리

<남염부주지>는 경주에 사는 박생이 삶의 바른 이치에 대해 고민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일리론(一理論)이란 글을 지어서 자신을 경계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일리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천하의 이치는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들었다. 하나란 무엇인가 하면 두 이치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치란 무엇인가 하면 성품을 이룸이요, 성품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하늘은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만들며 기(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理)도 부여해 주었다. 이

른바 이치란 일용사물에서 각기 조리(條理)를 갖는 것인데, 부자 사이는 그 친함을 다해야 하고, 군신 사이에는 의(義)를 다해야 하고, 부부와 장유(長幼) 사이에는 그 마땅히 해야 할 길이 있음을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도(道)라는 것이고, 이치가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 이치를 따르게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이치를 거슬러서 천성을 어기면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다. 궁리진성(窮理盡性)은 이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고, 격물치지(格物致知)도 이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 성품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며, 천지만물도 또한 이 이치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sup>2)</sup>

일리론은 천하의 이치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천하의 이치가 하나라는 것은 두 이치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가 둘 이상일 경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치와 기준이 적용되어 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이치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리(一理)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힌 다음에는 일리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늘은 음양(陰陽)의 상호작용으로 만물을 만들고 거기에 이치도 부여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치란 하늘이 부여한 성품, 곧 만물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성(天性)이라고 보고 있다. 이치는 또한 일용사물에서는 삼강오륜과 같은 조리를 갖는 것으로 드러나며, 일용사물에서 조리를 갖는 것이 천도(天道)이고, 일용사물에서 조리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치는 본래 우리 마

2) 常聞天下之理一而已矣 一者何 無二致也 理者何 性而已矣 性者何 天之所命也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理亦賦焉 所謂理者 於日用事物上 各有條理 於父子則極其親 語君臣則極其義 至夫婦長幼 莫不各有當行之路 是則所謂道 而理之具於吾心者也 循其理則 無適而不安 逆其理而拂性則 災逮窮理盡性 究此者也 格物致知 格此者也 蓋人之生 莫不有是心 亦莫不具是性 而天下之物 亦莫不有是理(「南炎浮洲志」, 『梅月堂外集』卷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간)

음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일리론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치(理致) = 천성(天性) = 조리(條理) = 천도(天道)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삼강오륜처럼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道理)인 조리를 천성으로 갖추고, 세상은 조리를 삶의 이치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조리를 천성으로 삼아 지켜야 하고, 세상도 조리를 삶의 바른 이치로 삼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천도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며,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도 이 이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다. 인간과 세상 그리고 하늘을 관류하는 하나의 바른 이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나아가 박생은 이러한 이치는 천하의 모든 국가, 하늘과 땅, 귀신, 역사를 통 털어 두루 통용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3)</sup> 현상은 다를지라도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현상과 본질로 나누어서 이치를 밝히는 논법은 일리론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으며 천하의 이치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생은 음양이 천지만물을 만들 때 부여해 주었던 이치를 삼강오륜으로 이야기되는 조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궁리진성(窮理盡性)이나 격물치지(格物致知) 등의 방법을 통해 이치를 연구한다는 것도 음양의 화생(化生)으로 이루어진 천지만물의 생성과 소멸 또는 운행의 이치를 궁구하고, 그 이치에 의거하여 인간세상의 조리를 만들어 가며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천성(天性)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3) 以是推之 天下國家 無不包括 無不該合 參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不惑 歷之古今而不墜(南炎浮洲志)

하늘의 형체가 끝이 없고 조화(造化)를 쉬지 않아 절후(節候)를 나누어서 추위와 더위가 운행되는 것은 대개 태양과 북두(北斗)가 위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여 아래에서 세월의 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니 어찌 소홀히 여겨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요씨(帝堯氏)는 사중(四仲)을 나누게 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을 살펴 공경히 인시(人時)를 주었으며, 제순씨(帝舜氏)는 선기옥형(璇璣玉衡)을 만들어서 일곱 가지 정사(政事)를 다스렸다. 대우씨(大禹氏)는 팔 년이나 외방으로 다니면서 구주(九州)의 홍수를 다스렸고, 낙서(洛書)의 글을 얻어 구주(九疇)와 전칙(典則)을 남겼다.<sup>4)</sup>

김시습은 <북신(北辰)>이라는 글에서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양하게 거론하면서 복희씨(伏羲氏), 신농씨(神農氏)를 비롯하여 요(堯), 순(舜), 우(禹)임금 등의 예를 들어 인간들의 제도와 문물이 일월성신으로 대표되는 천지만물의 운행 법칙과 질서를 본받아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삼강오륜의 조리와 천지만물에 부여된 이치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까닭이다.

일월성신을 비롯하여 천지만물의 운행 법칙과 질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의 차서와 질서를 규정하는 삼강오륜과 같은 조리가 천지만물의 생성 소멸과 운행의 이치를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것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범성과 당위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박생은 태학관(太學館)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서생이었는데 뜻과 기상이 모두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였음에도 한 번도 과거에 급제

4) 天形無垠 造化不息 而所以分節候 運寒暑者 盖日與斗柄之相推移於上 而成歲功於下也 則其可忽而不敬乎 ..... 帝堯氏 分命四仲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帝舜氏 作璇璣玉衡 以齊七政 大禹氏 八載於外 治九州之洪水 得洛書之文 以制九疇 以貽典則(北辰第二, 『梅月堂集』 卷十七,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간)

하지 못해 불만스러워 하고 있었다.<sup>5)</sup> 뜻과 기상이 고상했다는 것은 박생이 삼강오륜과 같은 조리를 천성으로 갖추고 이것을 삶의 이치로 삼아 실천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이 조리를 삶의 이치로 삼아야 한다는 이론대로라면 박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이 삶의 바른 이치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불만스러워 하고 있었다. 더욱이 무격이나 귀신의 논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극락과 지옥의 설로 죄와 복을 논하며 삶의 바른 이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현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용사물에서의 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늘이 부여해준 당위적 규범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원리였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불의와 이단의 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탁월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는 것은 삶의 바른 이치가 있음에도 세상이 불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단의 설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세상이 왜곡된 가치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규범과 당위는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은 불의와 이단의 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이 불의와 이단의 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가 실재하는 것이고, 마땅히 실현되어야 하는 당위적 질서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가 실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하고, 당위와 현실 사이에 넘어서기 어려운 괴리를 야기하게 되어 삶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의 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삶의 바른 이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나타날 수 있고, 바른

---

5) 成化初 慶州 有朴生者 以儒業自勉 常補大學館 不得登一試 常怏怏有感(南炎浮洲志)

이치가 존재한다면 그럼에도 세상이 불의와 이단의 설에 지배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세상은 교정될 수 없는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물음이 나타날 수 있다.

박생은 유학을 업으로 하는 유생이었음에도 일찍부터 무격(巫覡)이나 귀신의 설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불교도들과도 깊이 사귀어 절친하게 지내는 승려도 몇 사람 있었다고 한다. 그가 삶의 바른 이치를 찾기 위해 사상적으로 긴 편력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생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일리론을 지어 자신을 깨우치고 있었다는<sup>6)</sup> 것은 당위적 질서와 현실세계의 질서가 서로 어긋나는 데에서 파생되는 인식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침내 박생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음과 성품을 갖추지 않을 수 없고 세상도 이 이치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sup>7)</sup>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 박생이 삶에 대한 바른 이치를 터득한 뒤 인식의 혼란에서 벗어나 불의와 이단의 설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가 개조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에 대한 바른 이치는 하늘의 질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범성과 당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Ⅲ. 삶의 바른 이치와 타락한 세계질서의 원인

긴 사상적 편력을 거친 뒤 삶의 바른 이치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했던 박생은 어느 날 남염부주(南炎浮洲)에 가게 된다. 염부주에

6) 常著一理論 以自警 盖不爲他歧所惑(南炎浮洲志)

7) 盖人之生 莫不有是心 亦莫不具是性 而天下之物 亦莫不有是理(南炎浮洲志)



간 박생은 그곳이 초목과 흙 대신 구리와 쇠로 뒤덮여 있으며 낮에는 땅을 녹여버릴 듯한 불길이 하늘까지 뒤덮여 살이 타서 문드러지고 밤에는 뼈를 에는 찬바람이 불어와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보고 놀라며 두려움에 떠난다.

하물며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말도 없는 가운데 움직여서 사시(四時)가 운행하고 백물(百物)이 생장하여 쉬지 않으며 추위와 더위가 교대로 바뀌고 낮과 밤이 나누어져서 백성들에게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적의(適宜)함을 내려주니 상제(上帝)의 덕을 알 수 있다.<sup>8)</sup>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시습은 천지의 운행과 만물의 생성, 소멸을 음과 양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입장에 설 때, 음양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사시의 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뀌어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늘의 바른 도(道), 즉 천도(天道)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낮에는 땅을 녹일 듯한 불길에 살이 타서 문드러지고, 밤에는 뼈를 에는 찬바람이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염부주는 하늘의 당위적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당위적 질서가 지켜지는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세계였다. 그런데 박생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가 염부주에서 실재하는 것을 보고는 심각한 인식의 혼란을 일으킨다. 박생이 염부주를 보고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가 실재하는 것을 보고 나타났던 인식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치판단이 마비되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sup>9)</sup>

8) 況上天之載 無聲無臭無言 而四時行 百物生不息 而寒暑代晝夜分 降衷于下民 則帝可知矣(天形第一, 『梅月堂集』 卷十七,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간)

9) 박생의 이런 심리상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박생이 현실세계에서 겪었던 인식의 혼란, 즉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당위적 질서는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데에서 생겼던 인식의 혼란을 염부주에서도 꼭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염부주는 당위적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불의와 이단이 판을 치며 인간들의 조화로운 삶의 질서가 무너진 현실세계에 대한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박생을 깨우친 것은 그곳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였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박생에게 유학자의 자세를 일깨워주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의 이치가 담긴 도(道)의 요체를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sup>10)</sup> 문지기의 깨우침을 들은 후 조금씩 정신을 차린 박생의 눈에는 연좌(蓮座)를 설치한 수레에 동자와 동녀가 불자(拂子)와 일산을 들고 서 있는데 나졸들이 행인을 금하며 따라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이 인간세상의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박생은 그제야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보니 사람들이 녹은 구리와 쇠를 진흙 밟듯 밟으며 걸어가고 있고, 구리를 녹인 액체를 차처럼 마시는가 하면 쇠로 만든 구슬을 과일처럼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삶의 여건과 상황은 달라도 삶의 이치는 동일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현상은 달라도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sup>11)</sup>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월인, 1999, pp.199~201).

박일용, 「남염부주지의 이념과 역설」(『고소설연구』 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pp.47~50).

10) 爲儒者 當逢威不屈 何磬折之如是 吾儕欲見識理君子久矣 ..... 王欲延子於便殿 子當以訐言對 不可以威厲諱 使我國人民 聞大道之要(南炎浮洲志)

11) 박생이 정신을 차린 뒤 염부주를 보며 한결같이 인간세상의 것과 같았다(至王城 四門豁開 池臺樓觀 一如人間)고 고백한 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실재하는 것을 경험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박생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대상을 관찰하며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현상은 달라도 삶의 이치는 동일하다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었다. ①인식의 혼란을 경험함 → ②두려움에 떨 → ③두려움에서 벗어나기 → ④관찰하기 → ⑤대상의 실체 파악하기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 깨달음의 과정은 박생이 현실세계에서 인식의 혼란을 경험하며 일리론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염부주를 보며 겪었던 놀라운 경험은 삶의 이치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평소의 생각을 염부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고, 그 결과 박생이 삶의 이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염왕(閻王)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박생은 염왕을 만나서 먼저 주공과 공자와 석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 본다. 주공과 공자 그리고 석가는 서로 다른 지역과 문물을 가진 나라에서 활동했던 성인으로서 가르치는 방법과 대상은 서로 달랐지만 사람들이 바른 도리로 돌아가게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염왕의 대답이었다.<sup>13)</sup> 주공과 공자 그리고 석가는 모두 역사상 실재했던 인물들이었다. 역사와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문화는 다를지라도 삶의 바른 이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생은 다음에 귀신에 대해 물어 본다. 귀란 음의 영(靈)이요, 신이란 양의 영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음양

12) 박생의 이러한 변화는 염부주의 경험이 박생을 염왕과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삶의 이치에 대해 논할 수 있게 하는 전단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월인, 1999, pp.200~201).

13) 其極致則 皆使君子小人 終歸於正理 未嘗惑世誣民 以異道誤之也(南炎浮洲志)

의 양능(良能)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화의 자취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살아서는 인물이라 하고 죽어서는 귀신이라 한다는 것이 염왕의 대답이었다.<sup>14)</sup> 귀신을 음양의 양능에 의해 이루어진 조화의 자취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살아서는 사람이라 하고 죽어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점이 다를 뿐이라는 것은 사람도 귀신과 같이 이기(二氣)에 의한 조화의 자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과 귀신이 그 현상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하나의 이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귀신을 논하며 사람에게 대비시킴으로써 현실세계와 초현실의 세계, 이승과 저승이 현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이치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제 역사와 현실뿐 아니라 초현실과 저승의 세계까지 포괄하여 이 모든 현상에 하나의 이치가 적용된다는 것이 염왕에 의해 밝혀지며 온 세상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을 뿐이라는 박생의 주장이 염왕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박생의 다음 질문은 제사를 받는 귀신과 조화의 귀신이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염왕은 다르지 않다고 대답한다. 귀신을 이기가 작용하는 조화의 자취라고 한다면 귀신은 천지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게 하는 바른 기운이 된다.<sup>15)</sup> 그런데 제사를 받는 귀신과 조화의 귀신이 서로 다르다면 제사는 천지만물을 생성 소멸하는 바른 기운의 작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를 받는 귀신과 조화의 귀신이 서로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제사는 귀신의 본질적 기능, 즉 음양에 의한 조화의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사

14) 鬼者陰之靈야 神者陽之靈也 盖造化之迹 而二氣之良能也 生則曰人物 死則曰鬼神 而其理則未嘗異也(南炎浮洲志)

15) 김시습은 <鬼神>이라는 글에서도 귀신을 천지만물 사이에서 운행하는 바른 기운으로 보고 있다(鬼神者正眞之氣也 正眞之氣 運化兩間 下祐黎民 上順覆載(鬼神 第八, 『梅月堂集』 卷十七,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간)

를 드리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존경하고 기(氣)의 변화에 보답하는 등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며<sup>16)</sup> 염왕은 제사의 바른 법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박생은 요괴(妖怪)와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에 대한 염왕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귀(鬼)는 굽힌다(屈)는 뜻이요, 신(神)은 편다(伸)는 뜻입니다. 굽히고 펴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조화의 신이요, 굽히고 펴지 못하는 것은 울결된 요괴입니다. (조화의 신은) 조화와 어울린 까닭에 시종(始終)을 음양과 함께 하여 자취가 없는 데 비해 (요괴들은) 울결되어 엉기어 있는 까닭에 인물과 혼동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요물을 소(魍)라 하고, 물에 사는 요물을 역(魃)이라 하며 …… 만물을 해치는 요물을 여(厲)라 하고, 만물을 괴롭히는 요물을 마(魔)라 하며, 만물에 붙어있는 요물을 요(妖)라 하고, 만물을 유혹하는 요물을 매(魅)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귀(鬼)입니다. 음양의 변화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하여 신은 신묘(神妙)한 작용을 이르는 것이고, 귀(鬼)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sup>17)</sup>

조화의 신은 굽히고 펴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며 음양과 함께 하여 자취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화의 신은 귀와 신이 합쳐진 개념, 즉 귀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괴는 굽히고 펴지 못한다고 하여 귀(鬼)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요괴의 종류

16) 祭天地 所以謹陰陽之造化也 祀山川 所以報己和之升降也 享祖考 所以報本祀六神 所以免禍 盖使人致其敬也(南炎浮洲志)

17) 鬼者屈也 神者伸也 屈而伸者 造化之神也 屈而不伸者 乃鬱結之妖也 合造化故 與陰陽終始而無跡 滯鬱結故 混人物冤懟而有形 山之妖曰魍 水之妖曰魃 …… 害物曰厲 惱物曰魔 依物曰妖 惑物曰魅 皆鬼也 陰陽不測之謂神 則神也 神者 妙用之謂也 鬼者 歸根之謂也(南炎浮洲志)

를 다양하게 제시한 다음 이들을 모두 귀라고 한 데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귀신이 조화의 자취를 드러내지 않듯이 귀는 근본으로 돌아가 자취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요괴는 귀 가운데 특히 소멸되어 사라지지 않고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신을 음양과 함께 하며 자취를 드러내지 않는 조화의 신으로 본다면 요괴는 귀신이 되는 바른 이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게 된 귀신의 이변(異變)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의 바른 이치가 지켜지게 되면 요괴는 근본으로 돌아가 소멸되어 자취를 드러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귀신의 바른 이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요괴들이 생겨나 사람들을 원망하고 해치고 괴롭히고 유혹하며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 아니라, 하늘의 질서마저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귀신과 요괴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박생은 천당과 지옥의 존재와 명부시왕(冥府十王)이 죄인을 문초하는 문제에 대해 물어본다. 염왕은 이에 대해 건곤(乾坤) 밖에 또 건곤이 없고, 천지(天地) 밖에 또 천지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다.<sup>18)</sup> 그리고 왕(王)은 본래 모든 백성들이 추대하는 군주를 지칭하는 이름이었고, 그러므로 삼대(三代) 이전에는 왕 이외에 군주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서 너도나도 왕이라 칭하게 되어 왕의 명분이 어지러워지게 되었으나 신(神)의 세계에서는 존엄함을 숭상하기 때문에 하늘에 해가 둘이 아니듯이 한 지역에 왕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다고 했다.<sup>19)</sup>

18) 夫如是則 豈有乾坤之外復有乾坤 天地之外更有天地乎(南炎浮洲志)

19) 至秦 滅六國 一四海 自以爲德兼三皇 功高五帝 乃改王號曰皇帝 當是時 參竊稱之者頗多 ..... 自是以後 王者之名分紛如也 ..... 至於神道則尚嚴 安有一域之內 王者如其多哉(南閩浮洲志)

지옥의 왕인 염왕이 지옥과 명부시왕의 존재를 정연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부정하고 있다. 자기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염왕이 자신과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의 존재를 아무리 정연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부정해도 박생이 지옥에서 염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내가 나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재하는 내가 없어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염왕은 지금 박생에게 이론적으로 부정되었던 것이 어떻게 실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론과 실체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염왕이 자신과 자신의 존재 공간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는 것도 이론과 실체가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염왕의 존재는 염부주의 존재와 상통한다. 염부주 또한 마땅히 지켜져야 할 당위적인 질서는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은 이론과는 달리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가 실재하는 논리적 모순과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불의와 이단의 설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세계는 그 자체에 이미 논리적 모순과 좁힐 수 없는 이론과 실제의 거리를 함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위적 질서의 규범성에 의거해서 본다면 타락한 세계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계이다. 그러나 존재해서는 안 되는 타락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미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론과 실제의 좁힐 수 없는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부주가 당위적 질서를 이론으로만 존재하게 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염왕 역시 이론과 실체가 서로 어긋남으로써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세계의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염부주와 염왕에 대한 특이한 위상설정은 일찍부터 모순으로 인식되며 이것이 역설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기도 했고,<sup>20)</sup> 근래에는 반어적 표현으로 이해되며 반어에 의한 의미를 추적해 보려는 노력이 나타나기도 했다.<sup>21)</sup> 모순으로 보는 것은 염부주와 염왕의 위상설정을 논리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것이고, 반어로 보는 것은 의미적 괴리, 즉 말해진 것과 의미된 것 사이의 부조화를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당위적 질서와 현실의 질서, 이론과 실제 사이에 나타나는 논리적 모순과 의미적 괴리는 모두 타락한 현실세계가 가질 수밖에 없는 병리적 현상의 결과였고, 김시습은 현실세계의 병리적 현상을 염부주와 염왕의 특이한 위상설정을 통해 드러내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박생의 다음 질문은 재(齋)를 베풀어 지전(紙錢)을 사르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제사를 드리게 되면 세상에서 지은 죄악이 사면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제사의 타락상을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먼저 박생이 염왕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염왕이 다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염왕의 부탁에 대해 박생이 자세하게 대답을 하고, 박생의 이야기를 들은 염왕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대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생과 염왕이 몇 번에 걸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치며 제사의 타락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김시습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박생과 염왕은 제사의 법도를 논하며 제사는 음양의 조화를 존경하고 기의 변화에 보답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데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박생은 세상 사람들이 금전과 곡식을 소모

2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 pp.236~237).

21) 진경환, 「남염부주지의 반어」(『고전문학연구』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pp.277~310).



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써 복을 구하고 재앙을 없애려 할 뿐만 아니라 이승에서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으려 함으로써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개탄한다. 제사가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바른 법도가 사라지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염왕은 먼저 상서(祥瑞)와 재앙(災殃)의 원리를 제시하는 데에서 해답에 도달하고 있다. 하늘로부터 받은 천성을 간직하여 삼강오륜과 같은 인간의 도리를 지켜 행동하면 상서롭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따르는 것이며 상서를 부르고 재앙을 물리치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염왕의 대답이었다.<sup>22)</sup> 또한 재란 정결하다는 뜻이고, 부처란 청정함을 이르는 것이며 왕은 존엄함을 이르는 이름이라고 하며, 깨끗하고 존엄한 부처와 임금이 인간들의 공양과 뇌물을 받고 이승에서 지은 죄악을 용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sup>23)</sup> 길흉화복이란 인간이 도리를 지켜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부처와 명부시왕도 인간들의 타락한 뇌물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염왕에 의해 밝혀짐으로써,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사를 이용하는 인간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박생이 일리론에서 제기했던 삶의 이치가 모두 긍정되었다. 천지만물은 음양 이기(二氣)의 조화로운 화생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조리를 삶의 이치로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인간의 길흉화복도 여기에 의거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론대로라면 천지만물의 생성과 소멸이 음양의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귀와 신이 음양의 변화를 자유자재롭게 하여 조화(造化)와 함께 하면서도 그 자취를

22) 由是五典有序 三綱不紊 順之則祥 逆之則殃 (南炎浮洲志)

23) 且齋者 潔淨之義 所以齋不齋 而致其齋也 佛者清淨之稱 王者尊嚴之號 ..... 那有以清淨之神 而享世人供養 以王者之尊 而受罪人賄賂(南炎浮洲志)

드러내지 않게 되며, 인간들은 조리를 삶의 이치로 삼아 인간다운 도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삶은 그렇지 않아서 귀신 가운데는 요괴라는 것이 있어서 하늘과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인간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는 편법을 사용하여 죄를 용서받으려 함으로써 역시 하늘과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이고,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사실 긴 시간 동안 박생이 갖고 있었던 의문의 실체는 여기에 모아져 있었다. 삶의 바른 이치가 존재하는데 왜 세상은 타락한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해결은 요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을 찾아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횡사나 요절 등으로 정당한 죽음을 얻지 못했거나 원한을 품고 원망하는 혼령들은 그 기(氣)가 흩어지지 않고 울결되어서 원한이 맺힌 장소에서 모습을 갖고 사람들을 해치거나 미혹시킨다는 것이다.<sup>24)</sup> 요괴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성(天性)을 지키며 살지 못하고 다양한 이유로 정당한 죽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정당한 죽음을 얻지 못한 것은 세상의 질서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이다. 요괴의 작란은 하늘의 질서가 어지러워진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요괴의 작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된다.

한편, 인간들이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제사를 동원하여 죄를 용서받으려 하는 등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받은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다. 진시황이 왕이라는 명칭 대신 황제라는 이름을 사

24) 且冤懟之魂 橫妖之鬼 不得其死 莫宣其氣 嗷嗷於戰場黃沙之域 啾啾於負命 啣冤之家者 間或有之(南炎浮洲志)

용함으로써 역사에서 왕의 명분을 어지럽힌 것도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sup>25)</sup> 제사를 드려 복을 구하고 이승에서의 악행마저 용서받으려 함으로써 제사의 법도가 무너지게 된 것도 제사를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인간들의 욕심을 자극한 구체적인 이유는 세상이 상서와 재앙을 부르는 삶의 바른 이치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고 제사와 같은 것을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단(異端)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었다.<sup>26)</sup> 그러므로 인간들이 삶의 바른 이치를 어지럽히는 것도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과 인간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형태나 이변들은 결국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국가와 백성을 다스려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천성을 지키기 어렵게 되고 나라의 온갖 법도가 무너져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하늘의 질서마저 어지러워지는 것은 정치의 정도(正道)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었다.<sup>27)</sup> 주공과 공자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제사의 타락상에 이르기까지 삶의 바른 이치에 대해 논해 왔던 박생과 염왕의 긴 문답은 마침내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로 모아진다.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해법이 된다는 것이다.

---

25) 각주 19) 참조.

26) 인간들이 불전(佛前)에 재(齋)를 베풀어 죄를 사하려 했다(供佛設齋 以薦其魂 祀王燒錢 以贖其罪)고 비난하는 데에서 이런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27) 김시습은 「古今帝王國家興亡論」(『梅月堂集』第十八卷,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간)에서 진(秦)나라와 수(隋)나라의 예를 들어 제왕과 국가의 흥망을 살펴 보며 정치의 타락이 어떻게 인간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정치가 인간세상의 질서의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에 대해 김시습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정치의 정도(正道) 회복에 대한 염원과 선위(禪位)의 의미

박생과 염왕은 정치를 논하기 전 먼저 역대 왕조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제가 고려의 건국에 이르자 염왕은 탄식하고 서러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고려가 건국하는 이야기에 이르러 염왕이 탄식하여 마지 않았던 것은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백성들의 삶의 형태가 정치의 잘, 잘못에 의해 좌우되어 왔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한 염왕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 속으로는 반역할 의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일이 지나면 마침내 큰 일을 일으킵니다. 덕(德)이 없는 사람이 힘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비록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사로써 보이는 것입니다 ..... 서생은 다시 역대 제왕들이 이도(異道)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받은 일을 얘기하니 왕은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임금의 공덕을 칭송하는데도 수재(水災)나 한재(旱災)가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에게 매사에 삼갈 것을 경고하는 것이며, 백성들이 임금의 정사를 원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해서 교만 방종하게 하는 것입니다.<sup>28)</sup>

염왕은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28) 有國者 不可以暴劫民 民雖若懼而從 內懷悖逆 積日至月則 堅氷之禍起矣 有德者 不可以力進位 天雖不淳淳以語 示以行事 ..... 又復敍歷代帝王 崇異道 致妖祥之事 王便蹙額曰 民謳歌而水旱至者 是天使人主 重以戒謹也 民怨忤而祥現者 是妖媚人主 益以驕縱也(南炎浮洲志)

말하고 있다. 첫째, 나라는 백성들의 나라이니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하지 말라고 했다.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반역할 마음을 품게 됨으로써 민심이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덕망이 없는 사람이 힘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천명(天命)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도(異道)를 숭상하지 말라고 했다. 하늘은 수재나 한재와 같은 자연의 재해로 경고하고, 요괴들이 나타나 변괴를 일으킴으로써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명을 지키고 민심을 돌보며 이도를 배척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라는 것인데 염왕은 힘과 폭력 대신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다스림의 요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덕이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존경하고 복종하게 하는 인격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덕을 갖추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래의 성품, 즉 천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천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래적 자질이므로 천성을 지키며 살게 될 때 사람들은 가장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천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삼강오륜과 같은 조리가 일용생활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조리를 천성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천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천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또한 천성을 지켜 살게 되면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임금을 따르고 존경하게 됨으로써 민심이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삼강오륜의 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일 뿐만 아니라 일용사물에서 지켜지도록 힘써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삼강오륜의 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성과 당위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삼강

오류를 최고의 덕목으로 갖춘 자는 이단의 설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어, 이도를 숭배하는 데에서 생기는 자연의 재해나 요괴의 재변으로부터도 나라를 보호하게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박생이 주장했던 일리론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리론에서 내세웠던 삶의 바른 이치는 정치의 정도(正道)를 회복하기 위한 이치로도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생과 염왕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이치가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은 전혀 다른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생이 말했다.

“간사한 신하들이 별때처럼 일어나고 큰 난리가 자주 일어나는데도 임금이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여기며 이름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라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염왕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sup>29)</sup>

위의 인용문은 박생과 염왕이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기 위해 나누었던 문답의 마지막 부분이다. 위의 대화를 끝으로 정치에 대한 박생과 염왕의 대화는 일단락된다.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의 끝에 박생이 불쑥 내뱉은 이 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세계의 실상에 대한 고백이다. 염왕이 한 동안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확인되는데, 염왕의 망설임은 현실정치에 대한 직접적 논평이 쉽지 않았던 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박생은 염왕과 삶의 바른 이치에 대한 문답을 통해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는 것이 불의와 이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를 개조할

29) 曰 姦臣蜂起 大亂屢作 而上之人脅威爲善以釣名 其能安乎 王良久歎曰 子之言是也(南炎浮洲志)

수 있는 최종적인 해법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간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현실은 정도가 아니라 불의와 이단적 방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임금의 덕이 아니라 폭력적 방법이 동반된 위력으로써 백성을 억압하고 있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이치가 존재하고 이것을 실현시킬 방법도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정치는 타락한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정치에 대한 문답이 현실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마무리되면서, 박생은 정치에서도 당위적 질서는 이론만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박생은 다시 한 번 삶의 바른 이치가 지켜지지 않는 데에서 생기는 인식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용문에 나오는 염왕의 탄식은 혼란스러운 박생의 심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생은 삶의 바른 이치가 천지만물이 생성 소멸되는 우주 운행의 질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사실이 그렇다면 삶의 바른 이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현실이 타락한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하여 수정되거나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일만 년이 넘게 염부주를 통치하며 모든 일에 신령스러워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자부하는<sup>30</sup> 염왕이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며 박생은 자신의 생각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염왕은 박생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박생이 장차 자신의 뒤를 이어 염부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선위문(禪位文)을 지어 박생에게 준다. 먼저 염왕은 박생에게 선위의 뜻을 밝히며 박생이 염부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까닭을 알려주고 있다. 박생이 정직하고 뜻이 굳어 지조를 굽히지

30) 我名燄摩 言爲炎所摩也 爲此土君師 已萬餘載矣 壽久而靈 心之所之 無不神通 志之所欲 無不適意(南炎浮洲志)

않는 달인(達人)임에도 세상에서 쓰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그 뜻을 펼쳐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sup>31)</sup> 염왕이 다스리고 있던 염부주가 이제 박생이 세상에서 펼치지 못했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주(炎洲)는 장려(瘴厲)의 병이 도는 땅이어서 우왕(禹王)의 말자취가 이르지 못하였고, 목왕(穆王)의 말발굽도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 백성들의 풍속은 강하고 사나워서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그 간교함을 분별할 수 없고 지세는 높낮이가 심해 신령스런 위엄을 갖추지 않으면 교화를 베풀 수 없습니다. 아! 동국에서 온 박모(朴某)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질을 갖추어 몽매한 이들을 깨우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 마땅히 덕(德)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禮)로써 다스려서 백성들을 지극히 선(善)한 곳으로 인도하며 몸소 실천하는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sup>32)</sup>

위의 인용문은 염왕이 박생에게 준 선위문(禪位文)의 일부이다. 여기에 나타난 염부주는 성인마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거칠고 악독하며 강박한 공간이다. 이 때문에 성인들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삶의 바른 이치가 전파되지 않아서 풍속은 사납고 백성들은 몽매하고 간교하여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박생이 다스리게 되면서 염부주는 거칠고 사나운 것이 제거되어 태평한 세월을 누리게 될 것이 예고되고 있다. 박생이

31) 寡人聞 子正直抗志 在世不屈 眞達人也 而不得一奮其志於當世 使荊璞棄於塵野 明月沈于重淵 不遇良匠 誰知至寶 豈不惜哉 ..... 司牧此邦 非子而誰 (南炎浮洲志)

32) 炎洲之域 實是瘴厲之鄉 禹跡之所不至 穆駿之所未窮 ..... 民俗強悍 非正直無以辨其姦 地勢凹隆 非神威 不可施其化 咨爾 東國某 正直無私 剛毅有斷 著含章之質 有發蒙之才 ..... 宜導德齊禮 冀納民於至善 躬行心得 庶躋世於雍熙(南炎浮洲志)



덕(德)으로 이끌고 삼강오륜과 같은 예(禮)로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이 천성을 보존하여 지극히 선(善)한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이며,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생이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삶의 바른 이치를 터득해 몽매한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생이 염부주의 왕이 되는 것은 덕망과 능력을 갖추고 삶의 바른 이치를 지키려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염부주는 또한 전생에서 부모나 임금을 죽인 대역과 간흉들이 와서 염왕의 제어를 받으며 그릇된 마음을 고치는 곳이다.<sup>33)</sup>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목이 마르면 구리를 녹인 쇠물을 마셔야 하고 주리면 뜨거운 쇠덩이를 먹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sup>34)</sup> 구리를 녹인 쇠물과 뜨거운 쇠덩이를 먹고 마시는 고통을 겪으며 염왕의 제어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전생에서 부모와 임금을 죽인 대역이고 간흉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죄는 불전에 제사를 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치루고 인간이 개조되어야 소멸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박생이 염왕이 되어 가는 것은 죽어서라도 대역과 간흉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sup>35)</sup>

이렇게 본다면 박생이 염부주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삶의 바른 이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박생의 포기할 수 없는 염원을 염부주에 가서라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박생은 꿈에서 깨어나 병을 얻고는 무당과 의원을 모두 거절하고 세상을 떠나고

33) 今居此地 而仰我者 皆前世弑逆姦兇之徒 托生於此 而爲我所制 將格其非心者也(南炎浮洲志)

34) 彤雲蔽日 毒霧障天 渴飲赫赫之洋銅 飢餐烘烘之融鐵(南炎浮洲志)

35) 이런 점에서 염부주의 설정은 왕위찬탈이 횡행하던 정치현실에서 상처 입었던 내면심사를 달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기도 한다(정출현, 「15세기 귀신담론과 유명서사의 관련 양상」 『동양한문학연구』 26집, 동양한문학회, 2008.2, pp.441~445).

만다. 자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죽은 후 염부주의 왕이 되어 그곳을 자신의 이념대로 다스리려 했기 때문이다. 타락한 가치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살기보다 삶의 바른 이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죽음으로써 지키려 한 것이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임금에게 충성을 다 바치며 힘을 다해 도적떼를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어서 여귀(厲鬼)가 되어서라도 도적떼를 죽이리라고 하였는데 죽은 후에도 그 소원이 남아 있었고 충성심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임금이 된 것입니다.<sup>36)</sup>

염왕이 염부주의 왕이 된 사연을 밝히는 위의 인용문에는 죽어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잘 드러나 있다. 비장한 어조와 분위기 속에서 토로되는 염왕의 고백은 죽어서라도 자신의 이념을 지키려 했던 박생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폭력으로 왕위를 빼앗은 것을 정당화하고 있던 불의한 세상과 어울리기보다 세상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뜻을 지키려 했던 김시습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sup>37)</sup>

## V. 맺음말

경주에 사는 박생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당위적 질서가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은 불의와 이단의 설에 의해 지배되는 것에서 심각한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당위와 현실, 이론과 실체가

36) 我在世 盡忠於王 發憤討賊 乃誓曰 死當爲厲鬼 以殺賊 餘願未殄 而忠誠不滅 故托此惡鄉 爲君長(南炎浮洲志)

37) 박생이 염부주의 왕이 되어 간 것이 폭압적 현실구조에 맞서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윤주필, 『한국의 방외인 문학』, 집문당, 1999, pp.347~348).

서로 어긋남으로써 파생되는 괴리와 논리적 모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염부주지>는 불의와 이단의 설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의 타락상을 목도하며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꿈에 염부주에 간 박생은 그곳에서 염왕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많은 문제들에서 당위와 현실, 이론과 실체가 어긋남으로써 하늘에서는 요귀의 변괴가 나타나고 인간세상은 타락한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요귀의 변괴는 인간세상이 타락한 가치에 지배됨으로써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성(天性)을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인간세상의 타락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받은 삶의 이치가 세상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늘과 인간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형태의 이변이나 타락상은 결국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인간세상을 바르게 다스림으로써 성취되는 것이기에, 박생과 염왕은 정치의 정도(正道)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정치의 정도는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려 천명을 지키고 민심을 돌보며 이도(異道)를 배척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인 동시에 백성들이 천성으로 부여받고 있는 삼강오륜의 조리가 일용사물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도 당위는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의 정치는 타락한 가치에 지배되고 있었다.

마침내 박생은 죽어서 염부주의 왕이 됨으로써 삶의 바른 이치가 지키지는 세상을 건설하려 한다. 삶의 바른 이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염원을 염부주에 가서라도 실현

하려는 것이다. 타락한 가치에 지배되는 세상에 살기보다 삶의 바른 이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죽음으로써 지키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가치에 지배되는 불의한 세상과 어울리기보다 세상을 등지고 떠남으로써 자신의 뜻을 지키려 했던 김시습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1. 논문

- 박일용, 「남염부주지의 이념과 역설」(『고소설연구』 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영남어문학』 26집, 영남어문학회, 1994)
- 정출현, 「15세기 귀신담론과 유명서사의 관련 양상」(『동양한문학연구』 26집, 동양한문학회, 2008.2).
- 진경환, 「남염부주지의 반어」(『고전문학연구』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 2. 단행본

-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 문학』, 집문당, 1999.
-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The Internal Aspects and Meaning in *Namyeombuji*

Ahn, Chang-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nal aspects and meaning in *Namyeombuji* written by Kim Si-Seop. He saw the depravity of his era, and intended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real world in *Namyeombuji*.

In *Namyeombuji*, the world is ruled by corrupt values, which stem from the disparate concep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dissociation between normative order and actual order. And Mr. Park undergoes a seriously cognitional confusion by being faced with the separ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normative order and actual order, and logical contradiction. In this process, he intends to reform the course of his life by writing a treatise entitled *Ilriron*(一理論), in which he asserted that there is only one principle in this world.

In a dream, Mr. Park, who lived in Kyungju, went to the Hell called *Namyeomjubu* (南炎浮洲), and came to know that there extraordinary calamity occurred in heaven, and his world was ruled by corrupt values due to the dissoci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discordance between normative order and actual order, through the questions and answers with the King of Hades. He arrives at a conclusion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politics should be restored in order to reform the order of human society. However, normative order existed only nominally even in politics, and actual world was ruled by corrupt values.

Ultimately, Mr. Park intends to fulfill his long-cherished desire by choosing death for himself and becoming the King of Hades. In order to

show that right reason(principle) should be observed in human society, he acted up to his conviction by his dying rather than lived in the world ruled by corrupt values.

Key words : Internal aspects, normative order, actual order, disparate concept, the path of righteousness, conviction.

안창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전화번호: 051)510-2613  
전자우편: [csahn@pusan.ac.kr](mailto:csahn@pusan.ac.kr)

이 논문은 2008년 10월 29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
---